

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 칼을 중심으로 -

정석준*, 채종민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A Study on Kitchen Knives Used in the Homicide Crimes

Suk Joon Jeong*, Jong Min Chae

*Criminal Affairs Division,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I searched the recent murder cases for other criminal methods of homicides the monthly statistics of the local police agencies of the whole country, I found that there are many criminal cases where knives were used. Based on this finding, I decided to conduct my survey about kitchen knives. The statistics indicated more than five hundred male and female adults were reported to have committed murders. Of the 500 people, 21 used a kitchen knife to commit murder. This study showed that when people have a conflict, the kitchen knife is as a tool that can be easily changed into a weapon. If the points of the knife is round, more homicides could be avoided. If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as we have with dagger when producing, selling or purchasing, I would assume that the number of the crimes with knives will be remarkably diminishe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a bill concerning regulatory standards in understanding the dangers of kitchen knives. We must immediately participate in active publicity campaigns.

Keyword : knife, killing tool, homicide crimes, rounded edge, campaign

I. 서론

살인사건은 생활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떠한 이해관계와 만남에서 사소한 의견의 충돌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해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

르거나 둔기로 가격하여 일어나고 있다.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수사전담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보존으로 정밀감식과 아울러 수사가 진행되는데 살인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건으로 사건마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범인의 검거는 사건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안정의 도모와 함께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사

Corresponding author : Jong Min Chae, M.D., Ph.D.

Tel : 053-420-4885, Fax : 053-422-4712

jmchae@knu.ac.kr

건은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활동에는 사건은 불가피하게 마련이다. 살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분노, 욕구불만, 돈 문제, 이성문제 등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의 의식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다. 신문의 기사를 읽으면서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사소한 그런 일로 끔직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이내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범죄시계는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인식과 망각의 틈바구니에서 사건은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 상호간 살생을 한다. 동종간의 살인은 대규모 전쟁과 살인으로 구별되는데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인이 되지만 전쟁에서는 대량으로 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커녕 오히려 영웅으로 추대를 받는 등 아이러니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범에 대한 처벌도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전범수사를 통하여 처벌을 하는 실태이며, 인간이 상호간에 살인을 하는 것은 무기의 발달과 언어 및 추상능력의 발달에서 상대를 인간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살인은 인류 문화의 한 단면으로 그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살인사건의 발생빈도는 생활양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발생빈도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지방에서도 가장 높은 곳은 인구 10만 명 내지 25만 명 도시에서 인구 10만 명당 31.9명이고 가장 낮은 곳은 인구 25만 5천 명 내지 5만 명인 도시에서 10만 명당 2.7명이었다. 중앙대서양주에서는 10만 명당 1.28명 내지 3.28명이었으며 중앙동북부는 인구 10만 명당 1.8명 내지 5.81명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살인 발생률은 농촌이나 교외에 비하여 대도시에서 높으며 백인보다 흑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살인 발생률의 차이는 가치관의 문제, 교육에 의한 사회화의 정도 또는 종교상의 억제와 대도시에 집중된 유흥가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살인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의 싸움이나 술자리에서의 언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사소한 언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상의 인간관계와 의식에 있어서도 자아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언동이나 적의가 누적되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살인의 동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간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살인피

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57%로 나타나고 면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31%, 면식 없는 사람인 경우는 12%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격정이나 싸움, 말다툼에 의한 살인이 많고 반면에 여성의 살인은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나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 간의 불화나 원한, 분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자녀, 애인 등의 피해자가 많다. 이와 같이 여성이 가족이나 이성 등 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원한, 애정갈등이 동기가 되어 살인을 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여성의 살인은 양적인 면에서는 적은 편이나 동기나 형태 면에서는 상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하여 살인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측의 잘못에 의한 살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술의 생리적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다. 술은 진정제로 작용하여 두뇌중추신경의 억제기능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긴장과 억제를 감소시켜서 사교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지고 난폭해지며, 복잡한 사고 과정을 저해하기도 한다. 술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공격성을 자극하고 불안을 감소시켜 성적반응을 자극한다. 살인과 술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술 중독이 살인발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술로 인한 살인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전체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술이 반드시 살인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로 인한 살인이 주말에 많은 것은 싸움, 말다툼 같은 형태로 발전하여 술의 만취영향으로 대인접촉을 우쭐하게 하는 한편 억제력의 저하에 따른 인격과 행동의 이질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고 천박한 사고와 자제력의 상실로 살인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살인사건의 기사는 대부분 언론을 통하여 사건의 발생을 접하게 된다. 어느 누가 어떠한 일로 격분하여 또는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한 흉기로 또는 목을 졸라 살인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칼에 의한 살인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장 흔한 살인의 형태는 어떠한 사소한 동기로 인하여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로 상대방의 복부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고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주방에 칼이 없었는지 칼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있었는지 칼 끝이 동글었더라면 치명적인 살인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칼에 대하여 살펴보고, 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칼로 인한 살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표 1. 칼에 대한 인식을 위한 설문 항목.

항목	질문
1	귀하의 연령은? 20/30대() 40대() 50대() 60대()
2	귀하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기타()
3	귀하의 학력은? 초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4	귀하의 주택구조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 원룸()
5	귀하의 결혼 여부는? 미혼() 기혼() 독신() 이혼()
6	귀하의 집에는 몇 자루의 칼이 있습니까?(과도포함) ()
7	귀하의 사무실에는 몇 자루의 칼이 있습니까?(과도포함) ()
8	가정에서 칼을 숨겨둘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있다() 없다()
9	귀하는 화가 났을 때 칼을 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0	귀하는 칼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1	귀하의 집에 칼 보관 장소의 잠금 장치는? 있다() 없다()
12	가정용 칼의 끝 부분은 뾰족해야 한다. 찬성() 반대()
13	가정용 칼의 칼끝을 둥글게 한다면? 찬성() 반대()
14	가정용 칼의 위험 정도는? 못 느낌() 조금 느낌() 매우 위험() 기타()
15	평소에 칼 보관 장소는? 싱크대칼꽂이() 싱크대 위() 싱크대 서랍() 아무곳이나()
16	칼이 범행에 이용된다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칼끝() 칼날() 칼등() 모름()
17	살인사건에서 칼로 인한 범행은 몇% 정도 될까요? 10~20%() 30~40%() 50~60%() 70~80%()
18	가정에서 적당한 칼의 숫자는? 1~3() 4~6() 7~8() 9~10()
19	가정용 칼의 구입처는? 마트() 재래시장() 철물점() 노점상()
20	살인사건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행은? 칼() 목졸림() 둔기() 방화()
	아래 ①번은 일반적인 가정용 「식도·과도」이고, ②번은 칼 끝을 둥글게 바꾼 「식도·과도」로 귀하가 선택한다면? ① () ② ()
21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①</p>  <p>식도32cm(칼끝 뾰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②</p>  <p>과도22cm(칼끝 뾰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②</p>  <p>식도30cm(칼끝 둥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과도21cm(칼끝 둥글)</p> </div> </div>

II. 연구 방법

2-2. 연구의 범위

2-1. 칼에 대한 용어 정리

국어사전에서는 칼은 “물건을 베거나 깎거나 썰는 데 쓰이는 날이 선 연장”이라고 적고 있으며 도검의 용어에 대하여는 “칼이나 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검에 대하여는 “무기로 쓰이는 큰 칼”이라고 적고 있다.

불특정 다수 성인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로 분석을 하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칼의 위험도 인식’에 대한 조사와 칼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조사, 잠금 장치, 칼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수치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인식과 현실의 차이점을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10.0k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2.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살인	발생	653	630	679	784	963	976	941	1,057	957	998	1,083
	검거	650	640	680	770	975	993	955	1,076	994	1,038	

※ 전국 년 평균 28건 수사본부 설치

Ⅲ. 결 과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변사자 총 365,258명 중 타살자 13,694명(3.8%) 남자 8,361명(61.1%) 여자 5,333명(38.9%) 자살 13,629명(37.3%) 과실사 209,941명(57.5%) 재해사 5,279명(1.4%)으로 남자 3,539명(67.0%) 여자 1,740명(33.0%)로 나타나고 있고, 94년부터 04년까지 살인사건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은 표 2와 같다.

2004년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살인사건의 월별통계는 표 3과 같다. 일년간 접수된 살인사건은 108건으로 그 중 103건에서 범인이 검거되었다. 월별발생빈도는 매월 비슷하였으나 7월에서 10월 여름에서 가을 기간에 다소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에서 3월까지 각 지방청별 살인사건현황을 보면 전체 159건의 발생 중에서 서울경기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살인동기별로는 전체 159건 중 71건으로 44.7%를 차지하였으며, 살인사건 중 칼에 의한 살인이 93건으로 58.5%로 반 이상이 칼에 의한 살인이었다.

표 3. 2004년도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살인사건 월별 통계. (부산청)

구 분	발 생	검 거
계	108	103
1월	8	8
2월	5	3
3월	7	6
4월	10	9
5월	9	9
6월	8	7
7월	11	11
8월	15	15
9월	11	10
10월	10	12
11월	8	8
12월	6	5

3-1. 싱크대 위 식도(食刀)로 부부피살

2005. 2. 13. 14: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피해자의 집에서 이웃 주민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와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이웃들은 귀가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김모씨가 술에 만취하여 실수를 하자 피해자가 술도 많이 취하였고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남편도 칼로 찔려 사망케 하였다.

3-2. 싱크대 위의 과도로 존속살인

2005. 2. 23. 1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 3동 피해자의 집에서 피의자 김모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친모를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5회 찔러 배부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사건으로 피의자 김모씨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인 자인데도 이를 의식치 못하고 식도나 과도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존속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3-3. 설문에 의한 각 항목별 결과

설문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30대가 59.6%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다(그림 1). 설문대상자의 주택구조별에서는 아파트가 57.8%, 단독주택이 28.2%, 기타 순이었다(그림 2). 결혼여부에는 기혼자가 60.4%로 다수였다. 가정에서 칼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4례(8%)밖에는 없으며, 1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한 숫자의 칼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정에 칼의 보유 개수가 3~5개로 답을 한 경우가 49.3%로 가장 많았다(표 5). 사무실의 경우에는 25%가 칼을 두지 않았으며, 대부분 1~2개 보관하는 경우가 전체의 39%로 칼이 2개 이하가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표 6).

가정용 칼의 구입처는 마트가 76.9%로 대부분 마트에서 구입하였다(그림 3). 칼의 보관 장소에 대한 설문에는 싱크대 칼꽂이가 76.15%로, 칼의 보관장소가 거의 고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 외에는 싱크대 위와 서랍에 보관하였고,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4). 칼을 보관하는 잠금 장치에 대한 물음에는 97.7%가 불필요한 것으로 답을 하였다(그림 5). 설문대상자의 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물음에 대하여 살인사건에서 범행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흉기에 대한 질문에는 칼일 것이라는 답변이 68%로 많았으며, 그 다음 둔기를 사용(25.4%)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외에 살인방법으로 목조름이나 방화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그림 6). 살인에 칼을 이용할 경우 칼은 가정용 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68.4%로 많았다. 그러나 가정용 칼의 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경우는 26.4% 정도이며,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57.20%)와 위험을 못 느끼는 경우(13.7%)로 칼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70.9% 가까이 되었다(그림 7). 따라서 가정에서 특별히 칼을 숨겨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54.9%로 과반이 넘었다(그림 8).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칼을 들어

표 4. 2005. 1월~3월까지 지방청별 살인사건현황.

순번	지방청	살인사건 발생건수	칼에 의한 살해	살해동기	
				우발적	계획적
1	서울청	36	20	9	11
2	경기청	30	11	7	4
3	부산청	16	13	11	2
4	대구청	14	8	7	1
5	인천청	9	4	4	0
6	전남청	16	12	8	4
7	전북청	5	3	3	0
8	경남청	9	4	4	0
9	경북청	6	3	3	0
10	강원청	6	6	6	0
11	충북청	3	1	1	0
12	충남청	3	3	3	0
13	제주청	3	3	3	0
14	울산청	3	2	2	0
계	14개청	159건	93건	71건	22건

※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5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 칼에 의한 살인사건 총 93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의 59%를 차지하고 이 중 우발적 살해동기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본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 16%가 있다고 대답을 하여 잠재적 살인에 대한 위험이 높았다(표 7). 그리고 만약 칼이 범행에 이용될 경우 위험한 부분은 칼날(10.8%)보다도 칼끝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76.1%)로 월등히 높았다(그림 9). 따라서 가정용 칼끝을 뾰족하게 하여야 한다는 질문에는 83.3%가 반대하였으며, 반대로 가정용 칼끝을 둥글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92.1%의 높은 찬성을 보였다. 그리고 가정용 칼끝을 둥글게 만든다면 둥글게 만든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8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칼의 개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음	4	.8	.8	.8
1개	3	.6	.6	1.5
2개	49	10.0	10.2	11.7
3개	132	27.0	27.6	39.2
4개	109	22.3	22.8	62.0
5개	113	23.2	23.6	85.6
유효 6개	40	8.2	8.4	93.9
7개	12	2.5	2.5	96.5
8개	4	.8	.8	97.3
9개	2	.4	.4	97.7
10개	11	2.3	2.3	100.0
합계	479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1.8		
합 계	488	100.0		

표 6.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칼의 숫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없음	120	24.6	33.6	33.6
1	137	28.1	38.4	72.0
2	55	11.3	15.4	87.4
3	22	4.5	6.2	93.6
4	9	1.8	2.5	96.1
유효 5	3	.6	.8	96.9
6	1	.2	.3	97.2
9	1	.2	.3	97.5
10	8	1.6	2.2	99.7
12	1	.2	.3	100.0
합계	357	73.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1	26.8		
합계	488	100.0		

표 7. 화가 났을 때 칼을 든 경험.

		학력				전체	
		초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화가 났을 때 칼 든 경험	있다	빈도	3	12	1	16	
		칼든경험 %	18.8%	75.0%	6.3%	100.0%	
	없다	빈도	42	214	190	7	453
		칼든경험 %	9.3%	47.2%	41.9%	1.5%	100.0%

<연령대별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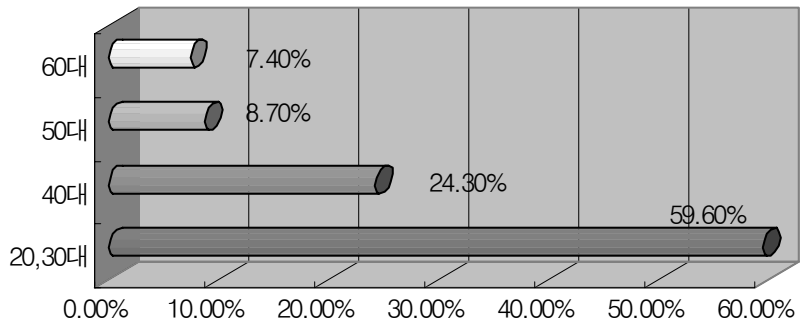


그림 1. 설문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

<주택구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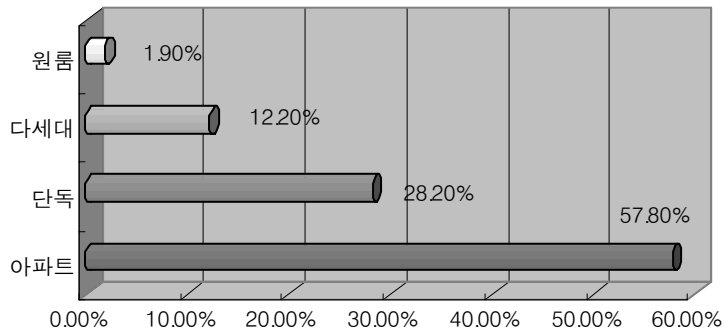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자의 주택구조, 아파트 거주자가 57.80%로 가장 많다.

<가정용 칼의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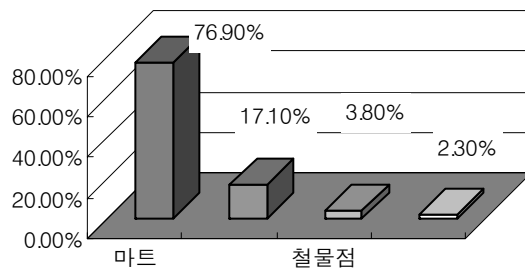


그림 3. 가정용 칼의 구입처.

〈평소 칼의 보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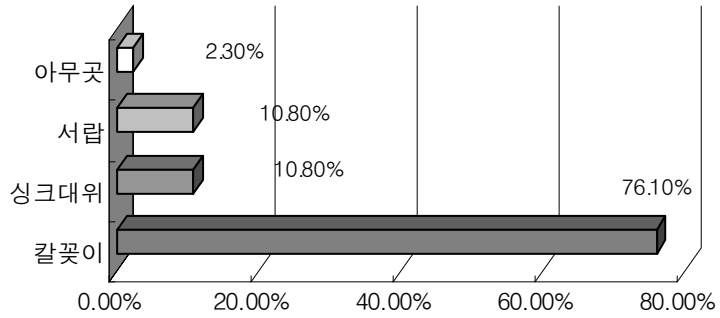


그림 4. 평소 칼 보관 장소. 대부분 싱크대의 칼꽂이에 보관하고 있다.

〈칼 보관장소의 잠금장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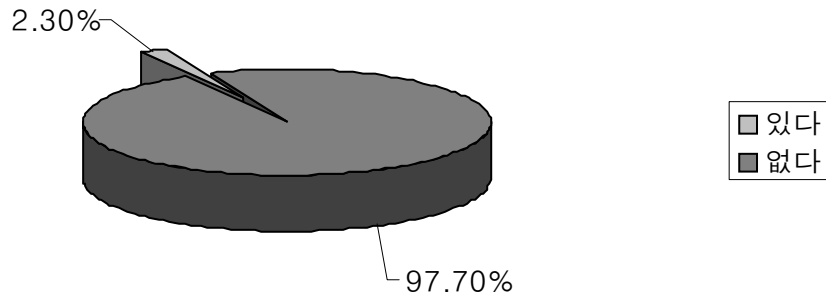


그림 5. 칼 보관장소의 잠금장치여부. 97.7%가 잠금장치가 없다.

〈살인사건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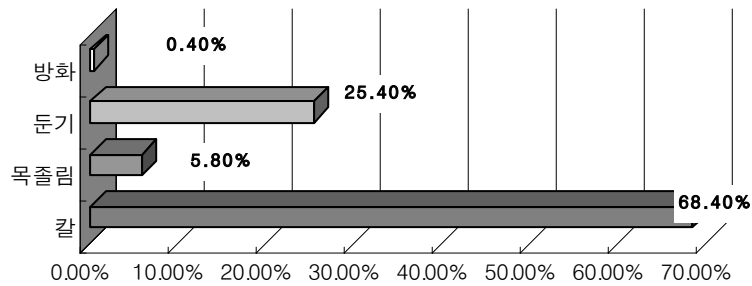


그림 6. 살인사건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범행도구.

〈가정용 칼의 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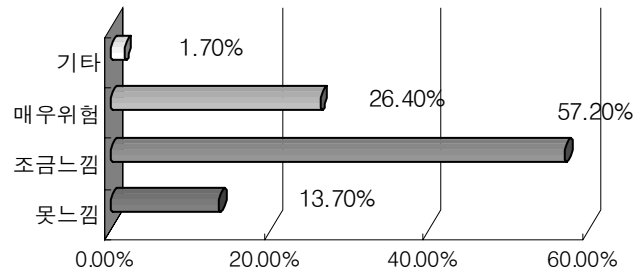


그림 7. 가정용 칼의 위험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칼을 숨겨둘 필요성의 찬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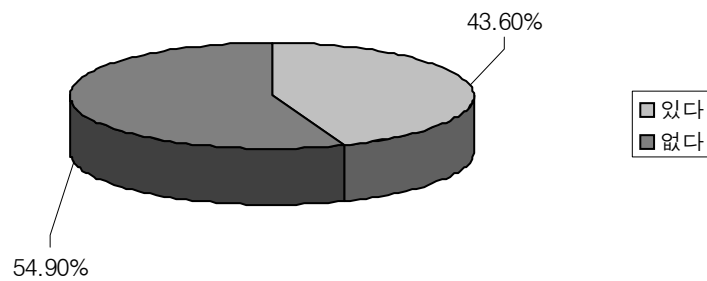


그림 8. 가정에서 칼을 숨겨 둘 필요성에 대해 인식. 응답자 54.9%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칼이 범행에 이용될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한 인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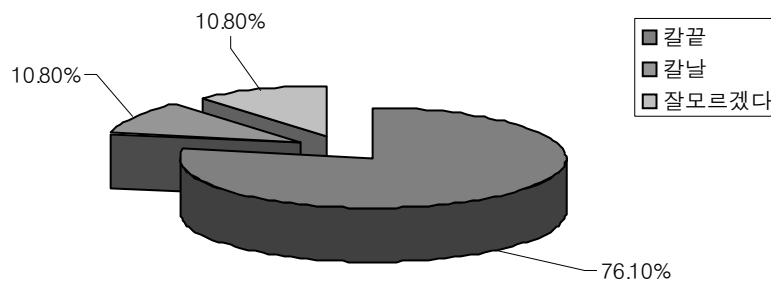


그림 9. 칼이 범행에 이용될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가정용 칼의 끝부분은 뾰족해야 한다는 의견의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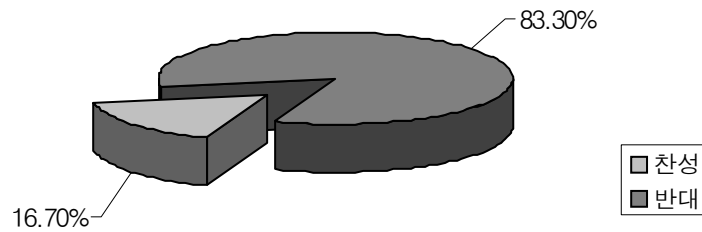


그림 10. 가정용 칼의 끝부분이 뾰족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 반응.

〈가정용 칼의 끝부분은 둥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의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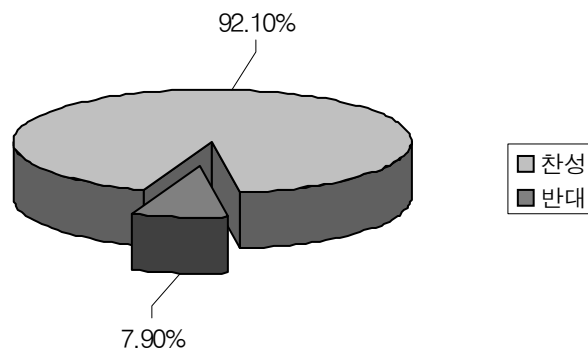


그림 11. 가정용 칼의 끝부분이 둥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일반 가정용 칼끝을 둥글게 만든다면, 뾰족한 것과 둥근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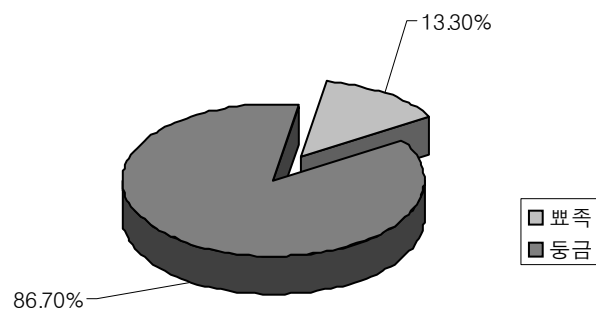


그림 12. 둥근 칼끝과 뾰족한 칼끝을 선택 의향.

IV. 고 찰

4-1. 칼과 도검의 인식 실태

칼이라 함은 흔히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도 또는 과도라고 인식을 한다. 도검이라 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 이외의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 또는 옛날 무사들이 사용하는 것들로 인식을 한다. 그러므로 도검은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도검의 날로 상대를 베고 찢러 생명을 앗아간다. 반면에 칼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즉 생선이나 채소를 다듬는 목적으로 그 기능이 살상의 목적을 가진 도검의 기능과 외관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칼은 도검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칼과 도검을 분류한다면 그 모양새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도검은 상대를 베고 찢르는 목적이라면 칼은 순수하게 베거나 깎는 용도로 찢르는 기능은 살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끝의 뾰족함은 불필요한 기능으로 순수하게 가정에서 조리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이탈하여 살상의 기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살상의 기능으로 충분한 칼에 대해 무기로 인식을 하여야 함에도 가정용이라 하여 규제를 벗어나 도검과는 달리 마트에서 자유롭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어디서든 사고 팔 수 있고 제작을 할 수 있으며, 허가 등의 행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칼에 대해 우리는 매우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도검에 의해 살해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살인사건이 가정용 칼에 의해 살해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4-2. 검 모양의 칼

칼을 만들어 일반가정에 보급하는 칼 공장을 찾아 “왜 칼을 뾰족하게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칼은 본래부터 모형이 그렇게 생긴 것이라는 답변을 한다.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칼은 칼이 아니라 도검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칼은 도검처럼 제작되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판매되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의 피해자는 일반 사용자들이다. 무기가 아닌 가정용 칼이 무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 무기의 기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의 기능과 도검의 기능을 달리할 이유는 충분하다. 가정용 칼이 무기로 사용된다면 가정용 칼도 무기로 분류를 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무기에 준하는 규제를 하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범행을 줄여야 한다.

4-3. 그 집 주방의 칼로(연쇄살인사건)

2000. 4. 8. 18:10경 동래구 온천 3동 1240-3 정태진 가 등에서 연쇄살인범 정모씨는 인적피해 18명으로 살인 8명 중상 6명 경상 3명으로 12년 6월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연쇄적인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정모씨는 범행 후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살해하는 잔인함을 나타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빠졌고 부산에서만 8명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정모씨는 범행대상의 장소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집 주방의 칼로 범행을 했다. 이는 칼을 휴대할 경우 불심검문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지만 주방에는 항상 칼이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가정에서 식칼이나 과도를 방치하여 결국 범인들에게 흉기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부산 동래의 정희장 집 살인 범행 때도 담장을 넘은 뒤 먼저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손에 넣은 뒤 일가족 3명을 칼로 찢러 살해를 했다. 만약 범행 장소의 집에서 칼을 숨겨뒀거나 끝이 둥근 칼이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극단적인 범행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4-4. 누구나 칼 구입가능(애인의 아버지 살해)

2005. 4. 20. 08:2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경우 애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식칼을 소지하고 애인의 집으로 찾아가 애인의 아버지를 칼로 찢러 흉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케 한 사건으로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분석해 보면 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cm로 청태잎을 감는 등 일부 개조를 한 흔적이 발견된다. 칼을 미리 소지하고 범행을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발견되듯이 재래식 시장이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여 일부 개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는 칼의 구입에 누구나 돈만 주면 가능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 칼로 인한 범행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4-5. 살상도구 가정용 칼

칼은 위험한 가정용 생활도구다. 음식의 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듯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이 도구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농산물을 깎거나 베기 위하여 날카로운 날과 끝을 가졌는데 이 날카로운 칼끝으로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삶이란 먹고 자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생물학적인 기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가족 간 또는 가까운 친구 등의 사람들과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칼로 사람을 살상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생활용품 칼은 무서운 살상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이 무섭지 않다. 늘 곁에 두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감마저 들 것이다. 싱크대 위 등 아무 곳이나 편리한 곳에 칼을 둔다. 어제든지 손닿는 곳에 두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하게 칼을 둔다. 이는 격분하여 사람을 찌를 때도 마찬가지로 칼을 쉽게 잡을 수 있다.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칼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칼날의 용도가 대부분인데 제작의 과정에서 칼날과 칼끝을 살려 살상용 검의 모형으로 제작되어 사람의 복부나 흉부를 찔러 사망케 하고 있는 실태이다.

4-6. 제작, 판매 자유로운 칼

칼은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다.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하고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면 지천으로 칼을 팔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칼이 아무렇게나 판을 치는 것은 칼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총포, 도검에 관한 법률은 가정용 칼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칼을 제작하는 업자는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제작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잘 팔리는 칼을 만들면 그 뿐이다. 결국 피해자는 가정용 칼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이다. 칼을 만드는 제작자나 칼을 이용하는 대중들은 칼의 위험에 대해 그다지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다. 평화스러운 상태에서는 아주 필요한 물건이며 칼로 인명을 살상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친근한 생활용품으로 인식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판매와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7. 살인사건의 경제적 고찰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자칫 모순인 것 같지만 어느 한 생명에 대해 때로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필요를 느낀다.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위치에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 등을 따져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렇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보상을 해야겠지만 범죄인의 경우 보상을 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보상은 막연하기만 할 것이다. 또한 살인사건의 경우 국가가 가해자의 처벌과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경비문제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사건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의 절감과 함께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셈이다. 만약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엄청난 수사비용을 소요하고 막대한 인력의 투입이 있었다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함께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살인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경찰력의 손실에 대해 연구의 가치가 충분함을 염두에 둔다. 살인은 그 행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피해자 사망으로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범인의 검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본부,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거나 타 사건보다 우선하여 많은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수사비용을 소비하게 되며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치안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2001.
2.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제1권), 대성인쇄공사, 2005.
3. 문국진, 최신법의학, “일조각” 2002
4.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수사실무 편람 『과학수사편』, 1997
5. 윤중진, 법의학 “도서출판 고려의학”, 1993
6. 박관규, Polygraph Examination, 국방부, 1999
7. 정현갑, 생리심리학, “교육과학사”, 1995
8. 치안연구소, 치안정책연구, 2004
9. 경찰수사연구소, “과학수사” “대한문화사”, 2001
10.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과학수사 실무”, “새롬”, 2004
11. 경찰청, “과학수사”, “대한문화사”, 2004

초 록

최근 살인사건의 실효를 보면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 살인을 음모하고 예견된 살인도 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한다. 우발적인 범행에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정용 칼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범행방법 중 칼에 의한 범행에서 동기 분석과 함께 살해에 사용한 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21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의 대부분이 칼끝이 날카로우며 사실상 범행에 사용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칼을 휴대하기보다는 범행 장소에서 칼을 쉽게 구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주방이나 식탁 또는 거실에서 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일반인의 칼에 대한 인식에서 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칼끝을 둥글게 하자는 여론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 충동적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인식전환과 함께 칼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가정에서 칼의 보관과 잠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부록(관련법규)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해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 판매 등

제4조(製造業의 許可)

①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 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 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 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수 없다.

⑤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販賣業의 許可)

①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충격기 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行商과 屋外販賣禁止)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개정1989.12.30 1995.12.6)

-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호 흉기의 은닉 휴대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하는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 벌칙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994. 7. 27 개정)